

“평화 훈풍, 내년 그대로 광주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조영택(왼쪽) 사무총장은 지난 17일 전 세계 스포츠계 최대 권위의 연례행사인 ‘스포츠계의 국제연합(UN) 총회’로 불리는 2018스포츠어코드 컨벤션(SportAccord Convention)에 참가해 국제 스포츠 기관·단체 인사 및 외신 기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조직원 제공>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순항’
국제 스포츠 기관 총회 참가
FINA 회장단 홍보 힘 실어
의료총책임관 위촉 준비 본격화

지난 2월 25일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폐막하면서 2019년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 등이 예정되면서 남북의 스포츠 외교가 정점에 달할 시점에 열리는 국제대회인만큼 전세계에서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도 변화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가 대회의 성공 개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 세계 스포츠계 최대 권위의 연례행사인 ‘스포츠계의 국제연합(UN) 총회’로 불리는 2018스포츠어코드 컨벤션(SportAccord Convention)에 참가중인 조직위는 우선 국제 스포츠 기관·단체 인사 및 외신 기자들과 잇달아 만나 광주수영선수권대회 소개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FINA(국제수영연맹) 홀리오 마글리오네(Julio C. Maglione) 회장과 코넬 마르쿨레스쿠(Cornel Marculescu) 사무총장 등 FINA 간부진도 총 출동해 세계 언론을 대상으로 한 광주세계수영대회 홍보

보에 힘을 보탤다.

19일 조직위에 따르면 조영택 사무총장은 개막 사흘째인 17일(현지 시간) 태극 방곡에서 열리고 있는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에 참여해 외신기자 인터뷰 및 국제 스포츠계 인사 면담, 홍보관 운영 등을 통해 개최도시 광주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알리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은 국제경기연맹총연합(GAISF), 하계올림픽국제경기연맹연맹(ASOIF), 동계올림픽경기연맹연맹(AIOWF), IOC(국제올림픽위원회)인 중국경기연맹연맹(ARISF), 독립인종경기연맹연맹(AIMS) 등 국제경기연맹 대표와 핵심인사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스포츠계 최대 권위의 연례행사인 ‘스포츠계의 UN 총회’로 불린다.

내년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소개하려는 해외 언론사들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17일 오전 인프론트 스포츠 미디어(Infront Sports & Media, 스위스)를 시작으로 큐티브이 스포츠(QTV Sports, 영국), 유탕 스포츠(Yutang Sports, 중국), 프랑시주(Francisjeux, 프랑스), 스포츠 비즈니스 인터내셔널(SportBusiness International, 영국), 프랑스 국영통신사인 AFP(Agence France-Presse) 등 세계적인 스포츠 전문 미디어와의 인터뷰를 통해 광주대회 개최 관련 준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인터뷰에는 FINA 마글리오네 회장과 코넬 사무총장 등도 함께하며 광주수영대회에 대한 미디어의 관심을 당부했다.

또 올림픽 출전 선수 연합(World Olympians Association)과 국제경기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2020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 2024파리 하계올림픽

조직위, 2028로스엔젤레스 하계올림픽 조직위 및 등 스포츠 유관기관 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한 정보교류 및 협력 방안 등도 논의했다.

조영택 사무총장은 “올해 스포츠어코드 컨벤션은 문화·스포츠 도시,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지구촌에 알리는 좋은 기회”라면서 “컨벤션 기간 동안 세계 유수의 방송·통신·신문사 기자 등과 인터뷰를 비롯해 스포츠관련 기관·단체와 광주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발전적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직위는 올 들어 대회 의료서비스 운영과 방향 제시 등 자문 역할을 맡게 될 의료총책임관으로 전남대병원 범희승 교수와 조선대병원 조수형 교수를 위촉하고 문화행사 자문회의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의료총책임관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이 끝나는 2019년 8월 말까지 FINA(국제수영연맹) 스포츠의료위원회와 조직위 사이에 의사소통과 의료 협력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문화행사 자문위원회 의에서는 자문위원들에게 개폐회식 총감독, 문화행사 코디네이터 소개하고, 개폐회식 추진계획 및 2018년도 문화행사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2019년 7월 12일부터 7월 28일까지(17일간) 2019광주세계마스터스수영선수권대회는 8월 5일부터 8월 18일까지(14일간) 200여개국 1만 5천여 명이 참가하여 경영, 다이빙, 아티스틱수영, 수구, 하이다이빙, 오픈워터수영 등 6개 종목이 남부대, 영주체육관, 조선대, 여수엑스포해양공원 등에서 개최된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도시 환경문제 해결사 될 것”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 인터뷰
‘환경 네트워크’ 통해 소통
영산강 시설 시민 품으로
재생에너지 높여 비용 절감



광주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제1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전경.

미세먼지 등 도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도시개발로 인해 인구가 집중되면서 그에 따른 이통, 거주, 편의 등을 위해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매년 그 영향이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2년 광주환경시설공단으로 출발해 2013년 광주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한 공단은 올해로 16년째를 맞았다. 최일선에서 지역 환경 문제를 고민하며 해결하고 있는 광주환경공단 안용훈 이사장을 만났다. 다음은 일문일답.

—광주환경공단을 소개한다면.
 ▲공단은 광주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발생시키는 오수와 분뇨, 각종 생활 및 음식물쓰레기 등을 처리하는 환경기초시설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또 생태와 문화가 한데 어우러진 광주천과 영산강을 만들기 위해 ‘광주의 환경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음식물자원화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폐기물을 자원화해 부가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자원순환에도 앞장서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광주제1·2하수처리장, 효천하수처리장, 제1·2음식물자원화시설, 광역위생매립장의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광주천과 영산강에 조성된 조경시설과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의 미션과 비전은 무엇인가.

▲미션은 ‘시민 행복을 위한 고품격 환경서비스 극대화’이며 비전은 ‘신뢰주고 사랑받는 친환경 선도 기업’이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의 최적화와 조직 내 인적역량을 강화하여 환경시설 경영의 최우수 기업으로 거듭나고, 고객 감동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윤리경영을 선도해 시민만족도 최우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주고 사랑받는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품격 환경서비스 극대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해지는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다.
 —이사장 취임 이후 대내·외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나.
 ▲먼저 공단의 경영전략 체계를 ‘기업성’과 ‘공익성’이라는 양대 축으로 한 2대



안용훈 이사장

목표와 4대 전략으로 재정립하고, 공단 경영방침으로 ①정분청원(근본을 바로 하고 근원을 맑게 함) ②현장소통 ③혁신지속 ④사회공헌을 제시해 전면적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기초가 튼튼하고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지방공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대외적으로는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다양한 관련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업하여 활발한 환경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우수 기업으로 거듭나고, 고객 감동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윤리경영을 선도해 시민만족도 최우수 기업으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시민들에게 ‘신뢰주고 사랑받는 친환경 선도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미래상을 담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고품격 환경서비스 극대화를 통해 시민이 행복해지는 미래상을 그리는 것이다.
 —‘생태환경 네트워크’이란.
 ▲급변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역주민과 여러 단체 사이에서 상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경영비전인 ‘시민행복’을 위해서는 가장

의 생태환경 네트워크를 구축해 협력하는 것이 선제적이라고 생각한다. 유능한 인재와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각종 인프라를 활용하여 광주 시민과 유린된 환경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바로 느낄 수 있는 행복한 광주의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한 기관과 협약 체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광주천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활동, 대학생 등·하계 계절학기 운영 등 지역사회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공헌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이사장 취임 이후 두드러진 성과는 무엇인가.
 ▲크게 3가지로 말하고 싶다. 먼저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친환경 기술개발 및 운영역량 강화, 끝으로 시민만족을 위한 서비스 및 지역사회공헌활동이다.
 —앞으로의 경영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고유사업인 환경기초시설을 완벽하게 관리·운영하는데 주력하겠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악취 개선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악취 영향을 벗어나 주력하겠다. 악취와 관련된 일부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악취 발생 예방부터 사후까지 철저히 관리하겠다. 이 외에도 영산강과 승촌공원의 시설을 개선하고 코스모스·유채단지 등 색채경관을 조성해 시민이 즐겨찾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환경시설의 재생에너지 생산을 증대해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 약 83억원의 운영경비를 절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어느덧 3년 임기의 절반 이상이 지나갔다. 38여 년의 공직생활과는 또 다른 공기업의 CEO라는 자리에서 처음 이사장으로 부임하던 때가웠던 초심을 잊지 않고,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을 책임지고 완벽하게 관리·운영함은 물론 광주시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옥상) 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탑이 없는 평슬라브 주택은 칼라강판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반영구적 최신공법의 특수방수!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가능!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냉·난방비 절감효과!

스틸방수 및 지붕공사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트윈스틸 (모던건설) 시공문의 **H.010-9229-3530**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원터치) 테잎 x 핀 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 시술 1만여명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마사 등급제품 130만원
59만원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아파트 상가2층
062 673 5858(모발모발)